대학으로부터 '웨이팅 리스트' 통보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 지원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웨이팅 리스트' 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웨이팅 리스트' 의 의미는 "우리 대학은 너를 좋아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뽑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대학은 합격 통보를 준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해 버려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웨이팅 리스트' 를 만들어 놓는다. 미국 대학들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격 학생들의 등록률이 매우 낮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75% 정도이지만 주립대학은 30% 미만인 경우도 많다.

대학의 이런 조치는 이해가 가더라도 '웨이팅 리스트' 에 오른 학생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웨이팅 리스트' 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열)이 소개했다.

1. '웨이팅 리스트' 탈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전미 대학카운슬링협회(NACAC)의 자료에 따르면 '웨이팅 리스트' 에 오른 학생의 1/3이 구제되었다.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학일수록 '웨이팅 리스트' 에서 풀릴 가능성은 낮다. 합격률이 50%가 안 되는 명문 대학의 경우 '웨이팅 리스트' 에서 풀린 학생이 17%밖에 안 됐다. 이 통계는 해마다, 대학마다 다르다. 그러나 다음 질문은 여전히 생각해 볼만하다.

-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웨이팅 리스트' 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나?
-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웨이팅 리스트' 로 계속 남겠느냐는 제안을 받아들이나?
- 최종 '웨이팅 리스트' 가 풀려 추가 합격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

많은 대학들은 '웨이팅 리스트' 에 대한 통계를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다.

2. '웨이팅 리스트'에서 풀리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웨이팅 리스트' 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은 학생도 그 대학 외에 여러 대학으로부터 합격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 학생은 이 가운데 한 곳에 등록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예치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대학에서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대학들은 5월 1일까지 등록 여부를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등록 기한을 6월 1일까지 연장한 대학들도 있다.

예치금은 일반적으로 100달러-500달러 정도이다. 이 돈은 그 해당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지 않는다. '웨이팅 리스트' 에서 풀려 추가 합격되어 다른 대학으로 갔을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 예치금과 별도로 기숙사 비용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웨이팅 리스트' 에서 풀려서 다른 대학으로 갈 경우 다소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3. '웨이팅 리스트'를 받은 대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

만일 자신이 꼭 가고 싶은 대학에 '웨이팅 리스트' 에 올랐다면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웨이팅 리스트' 에 올랐다 풀린 A 학생은 '웨이팅 리스트' 에 오른 후에 그 해당 대학을 방문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입학 사정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여러 차례 메일을 보내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결국 '웨이팅 리스트' 에서 풀렸다.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직접적인 방문이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학교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을 통해 학교를 파악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웨이팅 리스트' 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빨리 합격자를 확정해 '웨이팅 리스트' 상황을 종결하고 싶어 한다. 각 대학들은 '웨이팅 리스트' 에 오른 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학교에 꼭 오고 싶어 하는 학생만을 선발한다. 따라서 그 대학에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다. 즉 대기자 명단에 오른 대학이 자신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고 대기자가 풀리면 꼭 등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상 깊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 해당 대학에 더 발전한 학업 성적, 즉 GPA와 SAT, ACT 성적 혹은 특별활동에서 주목할만한 기

록들이 있다면 보내는 것이 좋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내는 것이 안 보내는 것보다 낫다. 학교 카운슬러의 강력한 추천 레터를 다시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가고자 하는 의지를 적은 어필 레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웨이팅 리스트'에서 풀릴 경우 재정보조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대학의 재정보조가 꼭 필요한 학생이라면 대학에 '웨이팅 리스트' 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만일 '웨이팅 리스트' 에서 풀릴 경우 재정보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합격한 학생보다 '웨이팅 리스트' 에서 풀릴 경우 재정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통 미국 시민권자 학생들은 10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이 need aware, 즉 재정보조를 달라고 하면 웨이팅이 풀리지 않는다. 따라서 웨이팅을 풀려고 하면 재정보조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즉 자비로 모든 학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웨이팅 리스트' 에서 풀린 학생에게 성적 우수 장학금도 주지 않으므로 이런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정상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에 비해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가고 싶은 대학으로부터 '웨이팅 리스트' 를 받고 가슴 졸이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대학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웨이팅 리스트' 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기울인 다음에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